

“120% 노력으로 기적같이 살아남겠다”

제주 첫해 6위·이듬해 3위 성적 증명
2017년엔 리그 준우승·ACL 16강행
2018시즌 위기에라도 상위그룹은 지켜



조성환 인천 심의 감독이 9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15라운드 성남과 홈경기를 앞두고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 축구인들 사이에서 '저평가된 감독'으로 통하는 그는 위기의 인천을 되살려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인천 | 주현희 기자 leth1147@donga.com

지도자의 능력은 결국 성적이다. 입맛에 맞는 선수를 잘 고르고,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최고다. 대개는 우승 횟수가 잦다. 우승 트로피를 몇 번이나 들어올렸느냐에 따라 지도력의 점수가 매겨진다.

하지만 모두가 우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승 다음으로 능력을 평가받는 것 중 하나가 '꾸준함'이다. 전력의 기복 없이 매년 상위권을 유지한다면 그 감독은 인정해줘야 한다. K리그 1(1부) 인천 유나이티드의 새 사령탑 조성환 감독(50)도 그런 부류다. 축구인들 사이에선 '저평가된 감독'으로 꼽히는 그는 명장까지는 몰라도 수준급 사령탑으로 정평이 난 실력자다.

그가 처음 감독이 된 것은 2015년이다. 2014년 제주 유나이티드 2군을 이끌다 이듬해 1군으로 승진하면서 감독의 길로 들어섰다. 첫 해 정규리그 6위로 상위그룹(1~6위)에 들면서 경쟁력을 증명했고, 2016시즌에는 리그 3위

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출전권을 따냈다. 2017시즌에는 정점을 찍었다. 리그 준우승과 K리그 유일의 ACL 16강 진출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2018시즌의 리그 성적은 5위였다. 당시 4시즌 연속으로 상위 그룹을 유지한 팀은 제주와 전북 현대뿐이었다. 그만큼 조 감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위기도 있었다. 2018시즌 15경기 연속무승(8무7패)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난국을 극복하고 결국 상위그룹에 들었다. 2017시즌에는 감독 교체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구단은 그의 능력을 재신임했다. 지난 시즌 초반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겉으로는 운화해보이지만, 내면은 승부욕으로 가득하다. 또 선수들과 소통을 통해 조직력을 가다듬고, 끈끈한 팀 컬러를 낼 줄 아는 지도자다.

그를 선택한 인천은 감독 선임 문제로 갈팡질팡했다. 임완섭 감독의 퇴진 이후 암 투병 중인 유상철 명예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려는 비상식적 결정이 여론에 막혔고, 이임생 전 수원 삼성 감독과는 막판 협상이 결렬됐다. 인천은 조 감독의 '위기 극복 경험'을 높이 사

영입했다. 누가 봐도 강등 확률이 높은 협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 감독은 "쉬는 동안 생각한 게 가장 먼저 나를 찾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구단이 있으면 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인천 구단과 철학을 공유하면서 이야기가 잘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아직 승리가 없다. 15경기 무승(5무10패)이다. 공교롭게도 2018시즌 제주에서 당한 불명예 숫자와 같다. 자칫하다간 파이널라운드 이전에 강등이 결정될 수도 있다. 선수단이나 팬 모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조 감독의 사전에 포기는 없다. 그는 "아직 기회는 있다. 매 경기 부족한 부분을 1%씩 채워나간다면 잔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선수 스스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120%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지도자 인생 2막의 첫 경기(9일·성남 FC전 0-2 패)를 놓친 조 감독은 이대로 주저앉으면 강등팀 사령탑의 불명예를 짊어질 것이고, 반대로 잔류하면 완전히 다른 평가를 얻을 수 있다. 기적 같은 회생 가능성에 대해 그는 "자신 있다"며 짧고 묵직하게 대답했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대니얼 강이 10일(한국시간)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주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 이어 2주 연속 챔피언에 오르며 대니얼 강은 시즌 첫 2승 고지에 오르며 시즌 상금 랭킹 1위에 올랐다. 샬베이니아(미 오하이오주) | AP뉴시스

재미교포 대니얼 강 '2주연속 우승' LPGA투어 '마라톤 클래식' 15언더파 269타

교포 선수인 대니얼 강(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개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대니얼 강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샬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마라톤 클래식(총상금 170만 달러·20억1000만 원)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3개로 3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재개 이후 첫 대회였던 지난 주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대니얼 강은 2017년 평산산(중국) 이후 3년 만에 LPGA 투어 2주 연속 챔피언에 오르며 2만5000달러(2억7000만 원)의 상금을 챙겼다. 시즌 첫 다관왕(2승)의 영광을 가져가며 56만6000달러(6억7000만 원)로 시즌 상금 1위에도 올라섰다.

선두 리디아 고(뉴질랜드)에 4타차 뒤진 12언더파 2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대니얼 강은 한 때 선두에 5타차까지 벌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14번(파3) 홀에서 버디로 15언더파를 완성하고, 같은 챔피언즈에서 함께 플레이한 리디아 고가 보기를 범해 17언더파가 되면서 다시 두 사람의 간격은 2타 차로 좁혀졌다. 이후 리디아 고는 갑자기 흔들렸다. 16번(파4) 홀에서 보기를 범하며 대니얼 강과 격차가 1타로 줄었다.

그리고 운명의 18번(파5) 홀. 리디아 고가 페어웨이에서 친 두 번째 샷은 그린 주변 카트 도로 옆에 떨어졌다. 무벌타 드롭 후 짧은 러프에서 친 세 번째 샷은 그린을 지나쳐 반대편 bunker와 bunker 사이 러프에 떨어졌다. 대니얼 강의 세 번째 bunker 샷도 짧아 그린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통산 15승의 주인공 리디아 고는 어처구니없이 무너졌다. 러프에서 친 4번째 어프로치샷이 턱없이 짧았고, 경사를 타고 굴러 떨어져 왼쪽 bunker로 들어갔다. 5번째 bunker 샷이 그린에 오르긴 했지만 약 3m의 보기 퍼트가 남았다. 4번째 샷을 홀 옆에 붙인 대니얼 강이 파로 먼저 홀 아웃한 가운데 리디아 고의 보기 퍼트가 들어가면 연장, 실패하면 대니얼 강의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 결국 리디아 고의 보기 퍼트는 홀 옆을 지나쳤다.

이민지(호주)가 최종합계 13언더파로 4위에 자리했고, 한국 선수 중에는 신지은이 6언더파 공동 20위, 가장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마라톤 클래식 최종 통산(파 71)			
순위	선수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대니얼 강(미국)	15언더파 269타	64-67-70-68
공동2위	조디 미워드(잉글랜드)	14언더파 270타	67-63-73-67
	리디아 고(뉴질랜드)		64-65-68-73
4위	이민지(호주)	13언더파 271타	68-67-68-68
공동5위	안드레아 리(미국)	8언더파 276타	67-71-73-65
	마리아 알렉스(미국)		69-71-69-67
	엠마 트리(미국)		72-66-69-69
	류위(중국)		70-68-69-69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루카 돈치치(가운데)가 9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ESPN 와이드 월드 오브 스포츠콤플렉스에서 벌어진 2019~2020시즌 밀워키 벅스와 정규리그 경기 도중 아사 아데토쿤보(왼쪽), 웨슬리 매튜스 사이로 패스를 찾고 있다. NBA 2년차인 돈치치는 연일 MVP급 퍼포먼스를 펼치며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도약하고 있다. 올랜도(미 플로리다 주) | AP뉴시스

루카 돈치치 'MVP급 퍼포먼스'...21세 맞아?

(댈러스 매버릭스)

밀워키전서 시즌 17호 트리플 더블
지난 시즌 MVP 아데토쿤보도 압도



농구에서 과감한 패스는 양날의 검이다. 예상치 못한 창의적 패스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 기회를 창출하지만, 반대로 실책의 위험성 또한 높다. 접전 상황에서 실책은 패배의 발미가 되기에 아무리 패스가 좋은 선수라고 해도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닌 이상은 4쿼터 막판 또는 연장 접전에서 과감한 패스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프로농구(NBA)의 '초신성' 루카 돈치치(21·댈러스 매버릭스·201cm)는 급이 다른 강심장이다. 돈치치는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ESPN 와이드 월드 오브 스포츠콤플렉

스에서 벌어진 2019~2020시즌 밀워키 벅스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36점·14리바운드·19어시스트로 시즌 17호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며 팀에 136-132 승리를 안겼다. 이날 경기의 백미는 연장 막바지에 나온 돈치치의 패스였다.

130-128로 앞선 연장 종료 1분10초 전 왼손 드리블로 상대 진영을 파고들던 돈치치는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했다. 팀 동료 맥스 클레버는 이를 받아 덩크슛을 성공시키는 동시에 상대의 파울까지 얻어내는 3점 플레이를 펼쳤다. 댈러스는 133-128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돈치치의 과감한 패스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이날 돈치치의 활약이 더 돋보인 이유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인 야니스 아데토쿤보(27·211cm)와 맞대결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아데토쿤보도 34점·13리바운드로 펄펄 날았지만, 돈치치의 강렬한 존재감이 빛을 잃었다.

지난 시즌 신인왕인 돈치치는 이제 2년차 시즌에 이미 NBA 최고 수준의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여 동안 시즌이 중단된 사이에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으로 연일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시즌 재개 이후 펼쳐진 5경기에서 평균 33.4점·11.6리바운드·11.6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와 맞대결을 펼친 아데토쿤보는 "내가 상대한 선수 중 가장 재능이 뛰어나다.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돈치치를 이기기 더 힘들 것 같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21세의 나이로 MVP급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돈치치, NBA는 이제 그의 시대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AT마드리드 UCL 8강 비상

추가 확진엔 14일 경기 불투명

선수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가 유럽축구연맹(UEFA)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아스 등 스페인 언론들은 10일(한국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2명이 2019~2020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전 참가를 앞두고 스페인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과 대회가 열리는 포르투갈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UEFA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팀의 포르투갈 이동 스케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단은 UEFA의 매뉴얼에 따라 9일 팀 훈련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UEFA는 UCL 8강 토너먼트 출전팀들의 모든 구성원이 대회 개최지인 포르투갈로 이동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선수들은 격리됐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들이 최근까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만큼 밀접 접촉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을 보고 받은 UEFA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4일 오전 4시 포르투갈 리스본 에스타디오 조세 알발라데에서 라이프치히(독일)와 대회 8강전을 치를 예정이다. 포르투갈로 이동하는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해 경기가 제대로 펼쳐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정상적 경기 진행은 어려울 수도 있다.

UEFA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UCL의 방식을 변경해 대회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8강전부터 포르투갈에 모여 단판승부로 우승트로피 '빅이어'의 주인공을 가린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